

똑같을까?

이희은 글 ·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나와 다른 사람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고, <똑같아!> 책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권장 차시	9차시
대상 학년	유치원 이상
관련 주제어	나, 다름, 존중, 친구
교육 과정 연계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2국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해서 듣는다. 2국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듣는 태도를 지닌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작성: 노음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



■ 도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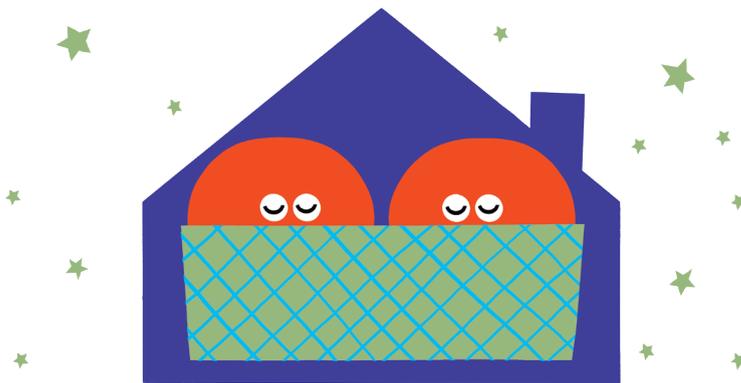
동그라미 둘이 눈을 바라보며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 “우리는 정말 똑같을까?” 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겉모습이 닮은 둘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과와 맛부터 가고 싶은 곳, 좋아하는 계절, 장래 희망까지 알콩달콩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똑같을까?』는 좋아하는 친구를 알아 가는 과정을 간결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처럼 가까운 이들을 비유한 동그라미 둘이 통통 튀어 다니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담아냈습니다.

■ 학습 목표

-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나와 다른 사람이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주고받는 말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아이들은 단짝을 매우 좋아한다. 나에게 단짝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하지만 가끔 단짝 친구라면 무조건 자기와 모든 것을 똑같이 해 주길 바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단짝 친구가 나와 의견이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단짝 친구라면 마땅히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친한 친구와 생각과 마음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가고 다른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닮은 점을 발견하는 것도 성장이다. 이 책은 꼭 단짝 친구가 아니라도 나는 우리 반 누구와 또는 우리 가족과 어떤 점이 닮았고 나는 또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티키타카 말놀이를 해 보며 자기도 모르게 한 뼨 자랄 수 있는 책이다.



■ 학습 과정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전	<p>나랑 똑같이 오려 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종이를 찢고 똑같이 오려서 붙인다. <p>마음을 맞춰 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지를 보고 친구와 동시에 말해 본다. - 얼마나 똑같은지, 또 얼마나 다른지 찾아본다. 	1차시
책 읽으면서	<p>나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가족 중에서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 <hr/> <p>정말 똑같은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키타카 대화를 주고받으며 책 읽기해 보기 <hr/> <p>나는 이런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속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화이트보드에 적으면서 책을 읽는다. 	2차시
책 읽은 후	<p>『똑같아!』 책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신나! / () 속상해! / () 즐거워! - 문장을 완성하고 발표하기 - “나도 그래.”라고 써 주기 - 책 만들기 	3차시
	<p>같이 또 다르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같은 모양을 이용해서 각자 만들고 싶은 그림 만들기 -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살펴보기 - 똑같아서 재미있어, 달라서 더 재미있어 이야기 나누기 	3차시

책 읽기 전

1. 나랑 똑같이 오려 봐!

- 짝을 지어 색종이를 오린다.
- 한 명이 어떤 모양을 오려 보이면 다른 한 명이 그 모양을 보고 똑같이 오려 본다.
- 이때 오리기 어려우면 모양을 대고 오려도 되고 비슷한 모양으로 오리는 정도면 된다.
- 오린 모양을 색종이에 붙여서 서로 비교한다.
- 이번에는 짝과 순서를 바꾸어 해 본다.
- 색종이에 붙인 두 모양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서로 이야기해 본다.
- 짝과 만든 색종이 작품의 제목을 함께 정한다.

2. 마음을 맞춰 봐!

-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 친구와 마음 맞추기 놀이를 해 보자.
- 모두 짝을 짓기보다 발표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둘이 나와서 해 보게 한다.
- 짜장면, 찜빵 / 숲, 바다 / 부먹, 짬뽕 / 축구, 피구처럼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거나 제일 좋아하는 놀이나 요일 같은 공통 질문을 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동시에 외치는 놀이다.
- 가까운 친구와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할지 예상해 보고 해도 좋다. '마음이 통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반대로 다 다르게 말할 것 같은 사람과 놀이를 해도 괜찮다. 모두 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똑같이 말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난다. 어른(교사)이 아이와 같이 해 봐도 재미있다.

책 읽으면서

1.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 친구, 가족 중에서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그 사람과 자신의 어떤 점이 닮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본다.

2. 정말 똑같은까?

- 그림책 속 질문을 하고 기다렸다가 교사가 왼쪽 장면의 글을 읽으면 아이들은 오른쪽 장면의 글을 크게 읽는다.
예) 사과를 먹으면(질문), 상콤해!(교사), 달콤해!(아이들)
- 눈을 감으면 / 무엇이 보여? / 어떤 모양일까? / 어떤 줄무늬를 좋아해? / 어디로 갈까? / 바구니를 짝 채우라고? / 어떻게 건넌까? 등 질문을 한 뒤 아이들과 함께 말놀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크게, 리듬을 살려 읽는다.

3. 나는 이런 사람!

- 이번에는 책 속 질문에 대해서 직접 써 보며 읽어 보자.
-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준비한다.
-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10초 만에 떠오른 대로 적는다. 봄이 좋아! / 겨울이 좋아! 하고 교사가 그림책을 읽고 난 뒤에 다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을 외친다.
- 숲, 바다, 강, 들판 중에서 어떤 곳을 더 좋아하는지 떠오른 대로 적고 책을 읽으면서 다 같이 '~가 좋아!'하고 외친다.
- ()가 반짝! 무엇이 반짝였을까 적어 본 뒤에 다 같이 자기가 적은 것을 크게 읽는다.
- 내 꿈은 ()! 자기의 꿈을 적은 뒤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읽는다.
- 몇 개의 질문을 더해 봐도 좋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색깔, 나는 아침밥을 (), 학교에 오는 것은 () 등 질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은 퀴즈처럼 묻고 답하면 된다.
- 친한 친구가 나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별로 이야기를 안 해 본 친구가 나와 생각이 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책 읽은 후

1. 『똑같이!』 책 만들기

- () 신나! / () 속상해! / () 즐거워! 문장을 각자 완성해 본다.
- 그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을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든다. 아이마다 세 장의 그림을 완성한다.
- 교사는 '나도 신나!' '나도 즐거워!' '나도 속상해!' 포스트잇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 아이들은 자기가 어떨 때 신나는지 그림을 보여 주며 발표한다. 시간이 없으면 전시를 해도 좋다. 다른 친구들은 '나도 신나!' 포스트잇에 자기 이름을 써서 친구의 그림에 붙인다. 여러 장 붙여도 된다.
- 속상해! 즐거워!로 만든 그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 아이들이 만든 세 장의 그림과 친구들이 붙인 포스트잇을 정리하여 붙인다.
- 『똑같이!』 표지를 만들어 작은 책을 완성한다.

2. 같이 또 다르게

- 교사가 색종이를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장 잘라 놓는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별, 해초 모양 등 모양별로 모아 놓는다.
- 학생들은 그 모양을 이용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그림을 만든다.
- 처음부터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가도 되고 짝이랑 의논해서 똑같은 모양과 개수를 맞춰 가지고 온 다음에 각자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도 된다.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전혀 또는 조금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 똑같이서 재미있는 것, 달라서 더 재미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